

전북도, UN 청년의 날 기념 국제행사 개최

전 세계 600여명 청년들 온·오프라인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전북도 도시 브랜드 향상 효과·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 기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유스나우(YOUTH NOW)와 공동으로 지난 12~13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600여명(오프라인 150, 온라인 450)이 참석한 가운데 UN 세계청년의 날 기념식과 새만금 일원을 탐방하는 2022년 UN 청년의 날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로컬의 미래, 지방소멸 속 청년들의 로컬브랜딩'이란 주제로 기념식, 지방소멸과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포럼 및 주제별 토크, 각국의 청년들이 하나 되는 교류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3일에는 새만금홍보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하면서, 플로깅(관람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 등 팀별 임무를 부여해 '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국제행사는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해, 출산을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이 사라져 가는 지역 활성



화 방안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여 그 개선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는 현재 당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멸과 청년정책 및 전라북도 관광지원 홍보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부합해 UN 청년의 날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하게 됐다.

전라북도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은 "UN 청년의 날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도의 새만금과 잼버리대회를 소개하는 등 도시 브랜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국제기구 채용 설명회,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 국제컨퍼런스, 국제거버넌스센터 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스나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청년이 중심이 되어 행동하고, 청년 역할을 강조하는 초협력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글로벌 청년 단체인 2015년 설립됐다. 유엔해비타트 공식 청년 파트너단체로서 2017년부터 2019년 UN 세계 청년의 날을 주관하였고, 2020년에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김경수 기자

“도민 위한 정책 발굴·시행할 것”

전북도, 임종명 차지경찰청장정책과장 임명장 수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2일 차지경찰청장정책과장 임명장 수여식을 정식 임용 발령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인사 발령된 임종명 총경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차지경찰청에 안착 기여를 당부했다.

임명장을 수여받은 임종명 총경은 향후 1년간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지경찰 사무를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차지경찰 첫 총경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도민중심의 진정한 차지경찰체 정착과 실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명 총경은 "앞으로 이



항규 차지경찰위원장을 중심으로 차지경찰의 최일선에서 제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한층 높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차지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최근 차지경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진정한 주민밀착형 차지경찰체 실현을 위한 '차지경찰 강화' 개선을 결의했다.

/김경수 기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도내 대상자 1만3681명

전북경찰청은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별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은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3명)도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행소나, 난폭·보복 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24.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뉴스시스

도,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 점검 실시

내달 3일까지, 축산물가공업판매업소 등 집중점검... 유통기한 준수·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 위생사항 전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축산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사항 전반이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수입 축산물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소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및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도, 시·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해 시정토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은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수거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실시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7개 분야 123개 시설대상

전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위험시설 등 123곳을 대상으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범정부적 민관 합동으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공공주택·전통시장·화재 취약시설 등 건축시설 분야 11곳 △공연장 및 체육시설 등 생활·여가 분야 16곳 △도로 등 교

통시설 분야 48곳 △산업·공사장 분야 16곳 등 7개 분야 123곳이다.

시는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시민과 시설물 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 시설물 관리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게시판에 올라온 자율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민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스스로 가정 내 위험요인에 대해 수시로 자가진단을 시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본격 실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전주시와 함께 금년 8

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생활지원 중심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 등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전주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계비, 긴급 간병비 지원 등 긴급 SOC 지원사업, 청소년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사회적 고립위험 청년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배인복지관장
 - 한스스피치·공인연희전북회장
 - 전북의재교육원 및 기관, 단지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의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정로코사 • 심리상담사
 - 개서 "665 스피치케어센터", "나쁜 배운, 뱀, 뱀"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문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공지능학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